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일요일 오후)

# 논 술 고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 Part I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1〉

“Free software” means that the users have the freedom to run, copy, distribute, study, change and improve the software. Thus, “free software” is a matter of liberty, not price. To understand the concept, you should think of “free” as in “free speech,” not as in “free beer.” Most free software licenses are based on copyright, and there are limits on what kinds of requirements can be imposed through copyright.

My work on free software is motivated by an idealistic goal: spreading freedom and cooperation. I want to encourage free software to spread, replacing proprietary software<sup>1</sup> that forbids cooperation, and thus make our society better. That is the basic reason why the GNU<sup>2</sup> GPL (General Public License)<sup>3</sup> is written the way it is — as a copyleft. All code added to a GPL-covered program must be free software, even if it is put in a separate file. I make my code available for use in free software, and not for use in proprietary software, in order to encourage other people who write software to make it free as well.

Many GNU libraries<sup>4</sup> are covered by the GNU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but not all. One GNU library which is covered by the ordinary GNU GPL is Readline, which implements command-line editing. I once found out about a nonfree program which was designed to use Readline, and told the developer this was not allowed. He could have taken command-line editing out of the program, but what he actually did was rerelease it under the GPL. Now it is free software.

— Free Software Foundation (www.fsf.org)의 글에서 재구성

1. proprietary software 독점 소프트웨어
2. GNU 유닉스 형태의 운영체제 이름
3. GPL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4. library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자원의 일종

### 〈제시문 2〉

#### (가)

자본주의 발달 초기에, 개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타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사적 소유권은 인간이 가진 자유권의 상징이었다. 또한, 누구나 노력하여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또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도덕적 정당화의 논리도 생겨났다.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 보장, 계약 자유의 원칙, 자유 시장 제도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이윤을 추구하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창의성과 자율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내 노동의 결과물은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의 동기 부여가 자율적으로 생기고, 창의적 결과물도 쏟아지게 되었다. 또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인간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면서, 개개인의 삶의 질도 비약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사적 소유권 및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본주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자본주의 사회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사유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스스로의 노력과 상속 등의 우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수준의 부(富)가 형성된다. 또한 개인들마다 타고난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력과 생산 능력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와 소득의 분배는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적 경쟁 사회에서 시장은 합리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시민 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해치기 때문에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재구성

### [문제 1]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 [문제 2]

〈제시문 2〉의 (가), (나)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시문 1〉을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